

2월8일(월)/사도행전9:1~9

### 제목: 사울의 낙마 사건

사울은 다메섹에 아직 예수의 잔당들이 있다는 소문을 듣고 살기가 등등하여 대제사장에게서 그들을 체포할 수 있는 영장을 발부받았다(1~2절). 예루살렘에서 다메섹까지는 약 99km였다. 도보로 걸어야 일주일의 길이다. 그는 직선적인 사람이다. 걸어가는 것은 그의 성미에 맞지 않다. 그는 있는 힘을 다해서 말을 몰았을 것이다. 다메섹에 가까이 갔을 때 하늘에서 정오의 밝은 태양보다 더 강렬한 빛을 받고 땅에 내동댕이쳐지고 말았다.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는 음성과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니라” 하는 단 두마디 음성 앞에 그의 모든 것이 와르르 무너졌다(3~5절). 율법에 대한 신념, 예수를 박해해도 된다는 그 정당성, 가말리엘 문하생이라는 자부심이 송두리채 박살이 났다. 역사상 말을 타고 가다가 말 위에서 떨어진 사람은 많다. 그러나 사울의 이 낙마 사건은 인류 역사상 가장 위대한 사건이다. 왜냐하면 사울은 구약과 예수님의 말씀을 잘 조합해서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교리를 만들어냈으며 이 교리를 통해서 전 세계에 하나님의 구원의 빛을 비춘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다. 현재 우리가 배우고 있는 모든 신념체계는 이 사울에게서 집대성되었다.

2월9일(화)/사도행전9:10~19

### 제목: 위대한 환영

그 강렬한 빛에 눈이 먼 사울은 사흘 동안 식음을 전폐하였다(9절). 그 사흘의 기간은 사울에게 있어서 아마 대단한 시간이었을 것이다. 그 때 다메섹에 아나니아라는 사람에게 사울에게 가서 도와주라는 하나님의 전갈이 왔다. 그는 직가라는 거리로 가라고 지시되었다(10절). 그 지시가 왔을 때 아나니아에게는 미친 소리같이 들렸을 것이다. 아나니아는 불쾌하였다. 사울이 어떤 사람인가? 그동안 예수 믿는 자들에게 행한 그 잔인한 행악을 들었다. 그러나 그는 순종하여 마침내 사울을 찾아서 안수하며 그의 눈을 뜨게 해주었고 함께 식사를 하였다(17~19절). 아나니아는 아무 영문도 몰랐다. 단지 사울이 이방인을 위한 하나님의 위대한 도구가 될 것이라는 말만 들었다(15~16절). 그리고 그는 믿고 순종하였다. 아나니아가 그 원수를 만났을 때 첫 마디 말이 “형제 사울아”였다(17절). 이 얼마나 위대한 환영인가? 이것은 크리스찬의 사랑과 용서의 가장 숭고한 모델이다. 그것이 예수 믿는 사람들만 할 수 있는 일이다. 이것이 기독교의 본질이다. 예수 안에서 가장 무서운 원수였던 사울과 아나니아가 한 형제가 된 것이다. 우리는 이러한 기독교의 정신을 생활 속에서 조금이라도 실습하며 살아야 한다.

2월10일(수)/사도행전9:20~22

### 제목: 사울의 첫 사역

사흘 동안 식음을 전폐 한 후 음식을 먹고 기력을 회복한 사울은 다메섹에 머물러 있었다(19절). 이전에 기독교의 박해자였던 사울이 이제 기독교의 형제가 되었다. 이렇게 전격적인 변화를 맞게 된 사울은 곧 바로 복음을 전했다(20절). 그의 말을 들은 모든 사람들은 놀랐다(21절). 여기서 듣는 사람이란 믿지 않는 유대인을 가리킨다. 이들은 사울이 예수의 도를 전파하는 것을 듣고 당황하였다. 그가 첫 사역을 한 곳이 아이러니컬하게도 자신이 기독교인들을 핍박하기 위해 거점으로 삼으려했던 바로 그 회당들이었다. 핍박의 장소가 은총의 장소로 바뀌었다. 사울이 예수님을 위해서 가장 처음 수고한 사역지가 다메섹의 회堂이었다. 이것은 큰 용기였다. 예수의 잔당들을 체포하기 위해 발부받았던 영장은 바로 다메섹의 회당에 보내어지는 것이었다. 사울은 자기가 잘 알려지지 않고, 자기 입장이 곤란하지 않는 지역에서 첫 사역을 시작했더라면 훨씬 쉬웠을 것이다. 그러나 그렇게 하지 않았다. 왜냐하면 그는 더 이상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우리는 전도하는데 지역을 가리고, 동네를 가리고, 사람을 가리면서 하고 있지 않은가? 그것은 용기도 부족하지만 복음도 부끄러워하는 까닭이다.

2월11일(목)/사도행전9:23~25

### 제목: 핍박받는 이유

여러 날 후에 라는 말은 적어도 3년의 기간을 가리킨다. 즉 3년간 사울은 다메섹에서 사역을 하였던 것이다. 유대인들이 사울을 죽이기 위해 얼마나 단호한 결의를 했는지 성문에까지 보초를 두어서 지키게 하였다. 성문까지 보초를 둔 까닭은 혹시 사울이 성을 빠져나가지 않나 싶어서이다. 그를 죽이고자 하는 계획은 치밀했고 적극적이었다. 어느 깊은 밤중에 사울은 어느 성벽 위의 집으로 가서 광주리에 담겨져 맞줄로 달아내려졌다. 사울은 탈출에 성공하였다. 이것은 앞으로 그의 생애가 어떤 모습으로 전개될 지를 암시한다. 그는 이제부터 도망 다니고 탈출하고 숨어 다니고 잡혀가는 삶을 살게 된다. 그들이 이렇게 사울을 적극적으로 죽이고자 한 사실에서 그동안의 사울의 전도와 가르침이 얼마나 큰 효과가 있었는지를 보여준다. 그의 가르침은 반박할 수 없을 만큼 논리적이고 분명했기에 대적자들은 폭력에 호소할 수 밖에 없었다. 무능한 사람에게는 핍박이 없다. 거짓은 항상 안전하다. 그러나 진리는 항상 위협 받는다. 그러므로 핍박은 칭찬이다. 사람들은 그것이 진짜라고 생각하면 그 때부터 흔들려고 준비를 한다. 현재 나에게 핍박이 있는가? 그것은 내가 무능하지 않기 때문이다.

2월12일(금)/사도행전9:26~30

### 제목: 바나바의 넓은 마음

다메섹 성을 탈출한 사울이 예루살렘에 가서 사도들을 만나기 원했다. 그러나 사울이 예루살렘에 도착했을 때 사람들이 그가 기독교인이 되었다는 사실에 의심하였다(26절). 사람들은 그가 예루살렘에서 어떻게 교회를 핍박하고 사람들을 감옥으로 끌고 간 것을 기억하고 있었다. 이 때 바나바가 나타나서 사울에 대한 오해를 풀어주고 그를 예루살렘의 제자들과 연결시켜 주었다(27~28절). 사울은 바나바로 인해 자신의 전도 사역에 더욱 박차를 가할 수 있게 되었다. 그는 이제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는 사람이 되었다(29절). 그는 자신의 말을 한 것도 아니고 자기 힘으로 한 것도 아니고 예수님의 힘으로 모든 사역을 감당하였다. 사울은 바나바의 넓은 자비의 은혜를 입었다. 바나바는 사울의 과거를 불리한 증거로 사용치 않았다. 흔히 사람들은 누가 한번 과거에 실수를 하였다고 하면 항상 좋지 않게 보려는 경향이 있다. 바나바는 그런 사람이 아니었다. 그는 과거에 실수한 사람이라도 지금은 개선되었을 것이라고 믿어주는 사람이었다. 우리도 이러한 바나바의 넓은 마음을 닮아야 한다. 우리 주변에는 남의 과거를 항상 들추어 낼 마음 자세가 되어있는 사람이 있다.



## 직장 · 가정 예배 모범문



작성자 : 박유신 목사



대한예수교  
장로회

안산제일교회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고잔2동 647-2(중앙동 7단지 뒤)  
Tel.(031)485-0955~7 Fax.(031)401-2370